



대전 2호선 트램사업 계속 추진되나

한시기구 '대중교통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 연장 승인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역점사업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권 시장의 낙마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대전시의 핵심사업인

국내 최초 트램건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 말까지 존속기한 연장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대전광역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상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여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까지 기한을 연장하게 된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2016년 기구화되어 2017년에 1회 연장 후 올해 2회 연장을 하게 되었으며 3급 단장을 중심으로 기획홍보과, 트램건설계획과, 첨단교통과 등 3개 과와 10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무상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BRT 건설과 이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대전 미래의 100년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트램은 전국최초로 대전시에서 추진하여 법·제도적 준비 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현재는 전국 10개 도시에서 추진 및 검토중에 있다.

그 동안 대전시는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트램건설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트램 3법' 중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였고, 도로교통법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연내 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부처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2018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기본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강규창 창조혁신담당관은 "한시기구가 1년 더 연장된 만큼 앞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통해 최종 사업계획 확정을 위하여 관세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호기자



천안 일봉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성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봉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일봉동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연합회가 후원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기간 일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모 일봉동장과 신성철 일봉동 주민자치위원장, 현경주 일봉동 동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본영 천안시장은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4700억 투여... 철도시설 노후화 '여전'

국민안전 직결 대책 마련 시급

철도 노후 전기설비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전기설비의 경우, 개량속도를 뛰어넘는 노후화가 진행 중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노후시설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철도분야에서 활용되는 일부 전기설비들의 개량 실적은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가 노후 철도 전기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4,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현상유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열차간 통신설비인 전송설비의 경우 2013년도 노후수량이 523대였지만 2017년 현재 982대로 무려 1.9배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열차간 통신설비인 열차무선설비의 경우도 2013년 5,007대에서 2017년 7,940대로 무려 1.6배 증가했

충남도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충남도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이렇다 할 볼거리와 먹거리 부족 등 공격적인 마케팅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아산4)은 20일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사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 정책 점검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17만 2000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4만명(23%)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전문가나 단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충남 문화관광 앱 개발 등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태선기자

충남도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충남도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이렇다 할 볼거리와 먹거리 부족 등 공격적인 마케팅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아산4)은 20일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사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 정책 점검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17만 2000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4만명(23%)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전문가나 단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충남 문화관광 앱 개발 등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호기자

수능일 아침 수험생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

대전광역시대전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이재관은 당초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23일로 일주일 미뤄짐에 따라 오는 23일 수능일 오전 시간대(07:00~09:00)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전면 해제 시 수험생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통행으로 버스를 탄 수험생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어 기존과 같이 단속은 추진하되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한 의견 진

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위반 면제에서 제외하고, 가로변 전용차로의 경우도 수능이 끝난 후(17:40 종료) 오후시간대(18:00~20:00)에는 기존과 같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23일 수능일에 수험생 대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와 연계해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전의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 전면이 경

유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도 부착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차질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중앙차로구간인 도안동로, 도안대로와 대전-오송 BRT 구간(북우성대로, 오정로, 대전로, 천변도시고속화, 구즉세종로)은 이번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대전시-5개구 현안공조 이상없다

대전시는 자치구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시청에서 5개구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에는 중구청에서 제2회 시·자치구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관련기사4면>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왔습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은으로도, 자동차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신뢰를 받고, 두꺼운 엔진 베어링을 노리는 행복한 자동차 운전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생색내기 · 퍼주기식 예산 편성안한다”

대전시의회 행사위,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해린)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3),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이날 심사에서 김종현 의원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관련 지난해 도수입 19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담배소비세 부과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545억원을 환급하는 것에 대해 소송대응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대응시 금액에 맞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나라사랑길 조성사업 54억 2,500만원을 2018년도로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올

해 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시 의원은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자문단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지적하면서 향후 정책자문단 위촉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여 정책자문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계유명미술특별전 입장료 62% 감소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역지로 입장료 수입을 과도하게 추계한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안사업 여론수렴 영역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의 정확한 범위와 산출내역도

없이 3억원의 예산을 정리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숙 의원은 청년 주택임대보증금 이자지원금 예산 99%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당초 정책 수립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생색내기, 퍼주기식 예산편성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고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회계로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투명성과 적정성이 관건이므로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

산 감액현황이 41건, 338억원 정도가 감액됐음을 언급하고, 잘못된 예산 예측과 직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면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안사업 여론수렴 영역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여론수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수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여론수렴을 위한 내용설계가 더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현안사업 여론수렴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해린 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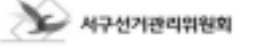
‘알리’와 함께하는 ‘쑥쑥’ 선거법 Q&A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히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선거법제 신고포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금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권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이용 선거범죄, 공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가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완료한 경우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 042) 471-1390

이은권 의원, 입체음향의 역할과 20만 일자리 창출 세미나

다민족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공헌 효과 주제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은권(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의원은 23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유상현 국회 사회공헌포럼대표의원과의 공동 주최로 4차산업혁명 3D AUDIO가 다민족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공헌 효과를 주제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입체음향의 역할과 20만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방송인 김한석씨의 사회로 3D AUDIO 개발자 박승민

씨, 이태진 ETRI 오디오연구실 전문위원, 김재평 대림대학교 방송음향영상학과 교수, 임영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송영의 한국방송장비산업진흥협회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참여하고, 최재원 위너브라더스코리아 대표이사, 김지운 영화감독(밀정,택스 등 감독), 류승완 영화감독(군함도, 베를린 등 감독), 정준호 영화배우(두사부일체 등 출연), 최태영 라이브론 대표, 김석연(블루팬 대표), 이성진(웨이브랩 대표), 이성준(플루토

대표) 등 총 8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시도의 상용화 및 기술 표준에 대한 내용과 30여 년간 돌비오디오가 지배하던 500조 규모의 세계오디오 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산·학·연이 10년간 힘을 모아 100% 국내 민간 자본으로 3D오디오를 만들고 3D오디오산업이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게 된 배경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사)한국양봉협회 공주시지부, 이종운 의원에 감사패 전달

양봉산업 육성에 헌신적 노력에 감사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원이 공주시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한국양봉협회 공주시지부(지부장 남상갑)는 지난 20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남상갑 지부장은 “이종운 시의원은 평소 (사)한국양봉협회 공주시지부에 깊은 이해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이에 오늘 제40차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운 시의원은 “(사)한국양봉협회 공주시지부가 공주시 양봉농가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양봉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저 또한 앞으로도 공주시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시의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아산시의회(의장 오만영)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제199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시정연설,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부서별 2018년 업무계획 및 글로벌기차 행복로드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총 46건으로 의원발의 17건, 집행부 제출 29건이며, 상임위원별로는 총무복지위원회 18건, 산업건설위원회 25건, 공통 3건이다.

홍성군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개최

5천 8백억 원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가 5천 8백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홍성군의회는 21일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7년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회기 첫날

인 21일 제1차 분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홍성군수의 군정연설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각 상임위원별로는 방은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김현수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22일부터 28일까지 군정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내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및 의결하고 15일 분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홍성=김정환기자

세종시의회 공공시설 인수 특위 ‘시민참여단’ 활동

3-2생활권 보림동의 도로 및 교통·공원시설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지난 11월 20일 특별위원회 위원, 시민참여단,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3-2생활권 보림동의 도로 및 교통, 공원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활동은 11월 7일 발대식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 활동으로 3개조로 나누어 1조는 시

청대로, 한누리대로 등 도로 및 교통시설을, 2조는 생활권 서쪽지역의 공원시설을, 3조는 생활권 동쪽지역의 공원시설을 도보로 이동하며 꼼꼼히 살폈다.

안찬영 위원장은 “평상시 보는 것과 다르게 시민참여단 활동을 하면서 관심 있게 확인하면 다양한 문제점이 보이게 된다.”고 하며 “시민참여단이 발견한 문제점이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 장민우 단장은 “처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보니 공공시설물에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담당으로서 어깨 무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국제교류 활성화 위한 현장방문



충남도의회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길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유병국 의원)은 21일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당진시 한국어말하기대회 국제교류 사례를 찾아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우수한 국제교류 사례를 벤치마킹해 타 지자체 전파 및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대표는 이날 대산항에서 중국~서산 취항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계획 및 향후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이어 찾은 당진 한국어말하기대회 현장에서는 그동안 추진 실적과 사례, 지역 관광 자원 교류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정복기자

권중순 의원,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심사에서 권중순 의원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자살 사망률이 1위로, 특히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이며, 자살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사람이 먼저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환기자



충남도 공무원 범죄 2일에 한번 꼴 발생

성폭력 21건 · 폭력 34건 · 금품수수 28건 · 도박 15건 · 음주운전 219건

충남도 공무원들이 이틀에 한번 꼴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금년도 7월 까지 약 638건(분청 83건·기초자치단체 555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횡령·유용 14건, 도박 15건, 성폭력 21건, 금품수수 28건, 폭력 34건, 음주운전 219건, 기타(무면허, 교통사고 포함) 307건 등으로 밝혀졌다.

분청 및 시군별 범죄현황을 보면, 분청이 83건으로 가장 많았으

며, 천안시 67건, 아산시 47건, 공주시 46건, 당진시 44건, 보령시 및 청양군 각각 41건, 소방본부 40건 순이었다.

범죄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로 13건이었으며 태안군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이 가장 많은 시·군은 성폭력(21건 중 5건)과 횡령·유용(14건 중 5건) 정양군, 금품수수(21건 중 각각 7건) 당진시와 보령시, 폭력(34건 중 7

건)과 음주운전(219건 중 25건) 도봉청, 도박(15건 중 각각 3건)은 당진시와 공주시로 밝혀졌다.

소병훈의원은 “충남도 분청 및 시·군의 범죄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는 충남도민의 공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기강해이로 이어진다. 공무원은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충남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기자

충청 지역 폐업자증가율 높아

세종은폐업증가율 1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윤호중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자 현황’에 따르면, 충청지역 개인사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전국 폐업자 증가율이 13.5%에 비해, 세종의 폐업자 증가율은 28.3%, 충북의 폐업자 증가율은 19.4%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충청지역

개인사업자 개업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지역의 높은 폐업자 증가율에 비해 개업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전국 개인사업자 개업 증가율이 15.5%에 비해, 대전의 개인사업자 개업 증가율은 3.2%, 충북은 8.9%에 그쳤다. 폐업율이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경우, 세종신도시 조성의 효과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개업이 5년간 123.1%에 달했

다.

윤호중의원은 “최근 1년 동안 갑자기 충청지역의 폐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충청지역 세무서는 체납유예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은행 충북, 충남 지역부는 개인사업자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선 기자



2017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아산시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

아산시는 지난 20일,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원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아산시의 ‘찾아가는 재능기부 복지종합상담장구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구시 호림라운지내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17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행정안

전부장관표창(동상)을 수상했다. 2011년도에 처음 개최돼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심의 사례 발표를 통해 선정됐다.

2013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재능기부 복지종합상담장구’는 아산시와 행복마을추진단(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재능기부로 구성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장구(복지상담, 일자리,

법률, 의료, 주거 등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극 대응했고 이에, 재능기부와 물품나눔을 함께 진행해 그동안 6,195명의 주민이 상담장구를 이용하며 저소득층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민·관이 함께하는 비예산 사업이다.

복지왕 시장은 “이제는 공공기관 중심의 복지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으로 자발적인 나눔문화 확산과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아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산시 전 공직자가 열정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리량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재산과표 변동자료 반영

128만 세대(17.7%)는 인하 · 263만 세대(36.4%)는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

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했고,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

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후·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제출·해충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송병배 기자

행정수도 개헌 첨병 ‘매거진 행정수도’ 창간

당위성·절박성 홍보설득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1일 행정수도 개헌의 첨병이 될 ‘매거진 행정수도<사진>’를 창간하고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헌법개정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조문이 반영되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 및 절박성을 홍보하고 설득하기 위해 ‘매거진 행정수도’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매거진 행정수도’는 타블로이드판 8면, 윗쪽 1만부로 창간되었으며, 향후에도 월간지로 발간될 계획이다. 지면 구성은 1면: 창간사, 2면: 촉상 행정수도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 4면: 행정수도 개헌 주요 발언, 시민 발언대, 5면: 전문가가 진단하는 행정수도 완성, 6면: 대책위 활동 소개, 7면: 행정도시 사수투쟁 역사 성찰, 8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행동 요청 등을 실었다.

‘매거진 행정수도’는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집중 홍보활동을 비롯한 찾아가는 홍보의 일환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배포될 계획이며, 세종시청의 행정수도 완성 이동버스와 연계하여 홍보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합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준일 세종시의회의장은 축사에서 “지방분권 초석을 다진 ‘매거진 행정수도’의 창간을 축하하며, 국민의 공감과 국회 논의와 동의를 이끌어 내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큰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축사에서 “관습헌법을 넘어 세종이 행정수도임을 분명히 하는 미래 헌법을 만들어야 하고,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하여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12월 중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충청권 민관경 결의대회, 수도권 집중 홍보활동, 국회 개헌특위에 손글씨 보내기 운동, 송년회 개최 등을 진행하여 연말까지 행정수도 개헌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살릴 계획이다.

이정복 기자

이춘희 시장 “자치조직권 부여 · 시의원 정수 확대 반드시 필요”

지역 현안문제 해결 국회방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 13일 국회 방문에 이어, 21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식 국토위원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국회본원 연구용역 보고회에 참석하는 등 광복행정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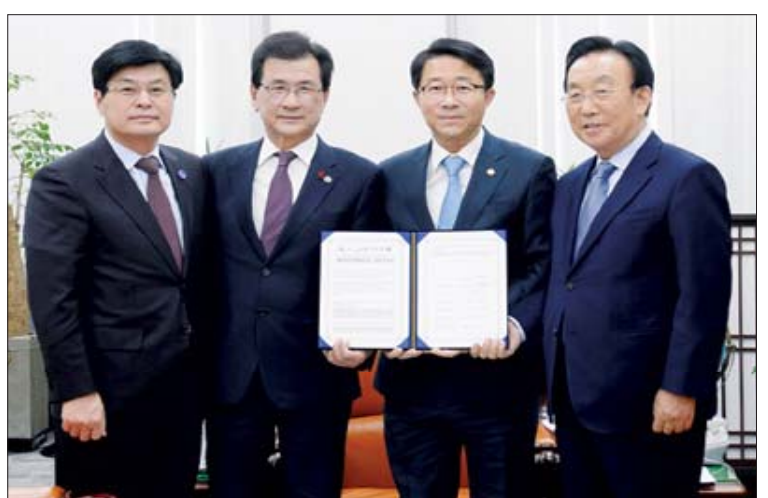
이춘희 시장은 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 및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함께 2018년 광역 SOC와 예산 편성과 관련, 중부권정책협의회(세종, 대전, 충북, 충남, 강원, 경북, 전북)에서 마련한 공동건의문을 조정식 국토위원장과 백재현 예결위원장에 전달하고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 국회본원 설치,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119특수구조단 청사 건립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시·국비사업도 적극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행안위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과 별도의 만남을 갖고, 이해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조직권 부여와 시의원 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



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회의사무처 및 한국행정연구원(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국회본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국회운영위원회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를 개헌특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개헌안에 행정수도 관련 조문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행복도시에 신개념 어린이놀이터 조성

오는 2025년까지 행복도시 광역도로 18개 노선 118km 완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이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신개념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착수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광역도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도시는 출산율과 아동 비율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놀이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수신 ‘모험놀이터’, 호수공원 인근 ‘방울새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금강 수변공원 ‘전기놀이터’ 등의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건립해 왔다.

우리나라 놀이시설은 ‘스틸기구형’의 1세대와 ‘종합놀이형’의 2세대를 거쳐,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어린이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테마형’ 3세대 놀이터

로 발전하고 있다.

행복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어린이의 창의성과 모험심을 높일 수 있는 특색 있는 행복도시형 놀이시설(가칭 ‘꿈의 놀이터’)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특화보다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를 벤치마킹하고, 놀이시설 전문가 편 해운씨를 초청하여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행복도시 내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놀이터전문가와 학부모 및 교사,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가 행복하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행복청과 세종시 및 교육청, 한국도주주택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놀이시설 실무 특별팀(TF)’을 이달 초에 구성하였다.

앞으로 행복청은 특별팀(TF)을 통해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을 끌고 나갈 어린이 놀이시설 전문가를 위촉하고, 학부모와 교사, 어린이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설득해 반영하고 공사 및 감리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도록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은 후보지역 선정과 설계·공사 착공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2018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광역도로 사업은 주요 나들목(IC 간 연결을 통해 전국 광역연결망을 구축하고 주변의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한편, 광역비알터(BRT)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중심 광역생활권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 간 상생발전을 제고하는 중점 사업이다.

행복청은 총 사업비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주요도시에서 행복도시로 2시간 내외에 접근

이정복 기자

● 특 정 ●●●

보육교직원 교육 행사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22일 오후 6시30분에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대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보육교직원 교육 행사에 참석.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식



한현택 동구청장= 22일 오후 3시 관암동 소재 동대전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개소식에 참석.

제14회 시각장애인 문화제



박용강 동구청장= 22일 14시 산성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제14회 시각장애인 문화제' 참석.

장애인 무료 진료



장종도 서구청장= 22일 오전 9시 20분 행복우리복지관에서 열리는 '장애인 무료 진료'에 참석.

마을축제 추진 관계자 회의



허태정 유성구청장= 22일 오전 10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 마을축제 추진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 참석.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주제



박수범 대덕구청장= 22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제.

2017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대전시설공단 표창 수상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중)은 21일 산업자원통신부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2017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안전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국의 민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후보자를 공모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공단은 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서 하수처리장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 전문기관과의 협업, 소수력·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설비의 선도적 도입 부문에서 높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전기안전공사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단 김근중 이사장은 " 그동안 공공 시설의 전기안전을 위해 힘써온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번 수상의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시설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ejeontoday.com

市, 제2회 시·자치구 정책협의회 열어

주요 정책 공유·빈틈없는 현안 공조

대전광역시은 자치구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시청에서 5개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에는 중구청에서 제2회 시·자치구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전시가 최근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섬에 따라 주요 현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해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 등 국비 확보가 필요한 7건의 상생사업에 대해 토의하고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치구

와의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중구청 회의실에서 행정부시장과 5개 구 부구청장 등이 모여 제2회 시·자치구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시와 자치구 간의 주요 정책들을 공유하고 상호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협업 공간으로써 두 번째를 맞는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과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시장이 쉼없는 상태이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 아래 연말연시에 다가옴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자칫 느슨해지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확립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지난 16 일에는 최일선 기관 책임자들이인 ㈜JS서비스이며 대전시 및 CSR지원센터는 보청기 지원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홍보 지원을 제공하고 ㈜S서비스 등 참여기업은 보청기 지원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이영호 기자

대덕구 사립작은도서관 연합회 정기회의

정보교류와 대화의 시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은 21일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에서 제2차 사립작은도서관 연합회 회의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작은도서관 15곳 18명의 관장과 운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도서관간 정보교류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11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구성된 사립작은도서관 연합회는 올해 '함께해요, 작은도서관 나눔마당' 축제 개최, 운영자 워크숍 등 대덕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연합회 회의를 통해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인적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독서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지역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도서관 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립 15곳, 사립 15곳에 총 5400 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순회서서를 파견해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도움과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김태선기자

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

동구, 금연구역 지정·운영 기준 홍보

대전 동구청장 한현택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달 3일부터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실내체육시설 218개소를 방문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기준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성 보건소장은 "실내체육시설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담배연기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증진담당(251-61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호 기자

체육시설 218개소를 방문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기준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성 보건소장은 "실내체육시설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담배연기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증진담당(251-61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호 기자

"효문화뿌리축제의 명장면 보고하세요"

제9회 효문화뿌리축제 전국 사진공모전 결과발표...52개 작품 선정 시상

35만여명이 찾은 '제9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의 사진 속 명장면은 어떤 작품일까?

대전 중구청장 박용갑은 21일 2017년 효문화뿌리축제 전국 사진 공모전에 총 52개의 작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는 국내의 사진애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축제 홍보와 지역관광자원의 자료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3일간 개최됐

작품에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에서의 대상은 박광현씨의 '어머니'란 작품으로 노년의 아들이 휠체어에 탄 노모의 발을 정성스레 묶어주는 장면으로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구 관계자는 "출품작들이 화합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아 효문화뿌리축제의 핵심 가치를 축적 관람객들에게 어필했다고 생각 하고 단순한 효의 의미를 넘어 가족간·세대간 화합을 위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 실시

서구, 원·투룸 밀집 지역 도시가스배관 100여 곳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1일 탄방동에 조성중인 '탄방동 숲방이 행복마을' 원·투룸 밀집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100여 곳)에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했다.

서구 탄방동에 조성중인 숲방이 행복마을은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15년 도마동 여성친화거

리, 16년 갈마울 행복마을에 이어 '탄방동 숲방이 행복마을'을 ▲LED보안등 교체 ▲태양광 표지 병과 로고젝트 설치 ▲낮은 옹벽 벽화 그리기 ▲무인 안심 택배합설치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을로 조성 중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유성구 취약한 원룸·다가구주택 안심무인택배 서비스 확대

유성구가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와 방범상태가 취약한 원룸·다가구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안심무인택배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행복채움 안심무인택배' 8개소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구측동 지역에 원·투룸이 많은 주택가 주변의 공공기관인 구측우체국에 1개소를 추가했다.

또한, 안심무인택배 서비스는 기존 설치·운영 중인 진잠동·운전1동·노은1동·노은2동·신성동·전민동 주민센터, 유성문화원, 충남대학교 제1학생회관과 함께 유성구 전 권역에 총 9개 소로 확대 운영된다.

특히,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무료이지만 물품보관시

간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에 1,000원씩 금액이 추가된다.

안심무인택배 서비스는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물건을 넣으면 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수령인은 이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서 택배를 찾아가면 되며, 무인택배할 추가 설치로 여성을 노린 강박범죄 예방은 물론 바쁜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범죄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택배할 사업을 비롯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여성안전지킴이집', '유성 스마트 안심존', '청소년 안심벨' 등 안전시스템을 운영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

50주년 기념 5000만원 기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는 지난 18일 충남대 의과대학과 총동창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5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성금 5천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오명주 총동창회장은 "충남대학교 의대가 발전하게 된 데에는 많은 동문과 교수님들, 그리고 충남의대와 늘 함께 해주셨던 시민

들 덕분에"이라며,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 의과대학은 지난 1967년 11월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에서 11번째로 설립된 후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까지 4890명의 졸업생들이 국·내외 의학계 분야에서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병배 기자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충청권 교육기관 실무자 초청 토론회·간담회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21일 대전-충청권 지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전보훈청 5층 대강당에서 교육기관

실무자 초청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병배기자

수도권 인접한 국립양평치유의숲 본격 개장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느림'과 '쉽'을 주제로 국민에게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국립양평치유의숲이 21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황거길 262-10번지 일원에서 산림청 최병암 산림복지국장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양평치유의숲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심양수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의 치유의숲 조성 경과보고에 이어 운영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의 환영사,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의 기념사, 김선교 양평군수의 축사,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설은 산림청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623ha(주요시설지구 8680m²)의 부지에 건강증진센터, 온열치유실, 치유실, 치유 숲길(13km), 치유음악, 숲속오두막, 통나무놀이숲, 풍욕장 등으로 조성했다.



무놀이숲, 풍욕장 등으로 조성했다.

치유 프로그램은 슬로우드래피(일송병매기자

반인), 수호림테라피(가족, 활력업 힐링(방제직군/청소년), 숲속 심비학교(어르신) 하늘숲테라피 I·II(국립하늘숲주모원 이용객), 숲테고(산림청 연계) 등 7개와 녹색자금 지원프로그램(3개)을 포함, 총 10개이다.

이 시설은 특히 도심에서 당일행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잣나무와 소나무, 낙엽송 등이 풍부한 경기도 양평의 산림자원을 활용,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운영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양평치유의숲은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숲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면서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특화되고 차별화된 치유의숲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이엔지(주)-온양6동 사랑의 물품 나누기

아산시 온양6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지수기)은 20일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양이엔지(주)·아산시기초푸드뱅크와 함께 관내 한부모 및 저소득 취약계층 150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등 사랑의 물품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물품 나눔 행사는 한양이엔지(주)에서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고 아산시 기초푸드뱅크에서 후원물품을 더해 한가정당 10만원 상당의 물품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했다.

특히, 한양이엔지(주) 직원들도 구성된 한누리봉사단 90여명이 대상자의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물품을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수기 단장은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한양이엔지의 나눔경영과 실천활동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겸 온양6동장은 "아산시에서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이 온양6동인데 한양이엔지에서 후원 물품과 많은 직원 분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줘 감사하다"며, "봉사를 통한 희열과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활동을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KITA 대전세종충남 CEO 글로벌 포럼

무렵 대전세종충남본부, 120여명 참석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21일 롯데시티호텔대전에서 '제8회 KITA 대전세종충남 CEO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해민 前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 가 연사로 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쳤다. 이번 포럼에는 수출 지원 기관장 및 기업 대표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무렵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매 홀수달 셋째 주 화요일에 경제, 경영, 통상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 고위 당국자 등을 초청해 조찬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제정책, 기업 경영 및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경영 전략을 공유하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송병매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맥류(밀·보리) 파종적기 놓쳤다면 이듬해 봄에 하세요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밀과 보리의 파종기를 맞아 파종적기를 놓칠 경우 이듬해 봄에 파종할 것을 당부했다.

밀, 보리의 가을 파종적기는 10월 1일~10일까지로 이 시기가 지나 파종을 하면 추위로 인한 피해 및 생육부진 등으로 수량이 떨어진다.

파종적기가 지난 경우에는 이듬해 이른 봄에 파종하는 것이 작물의 원활한 생육에 유리하며 수량이 5% 더 많다.

봄 파종의 경우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을파종보다 파종량을 25% 늘리고 파종(뿌리는 꽃이 피기 위해 생육초기에 저온환경이 필요)이 낮은 품종을 선택해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시비량은 가을 파종과 같은 질소질비료(9.4kg/10a)를 주되 전량 밀거름으로 주며, 파종 시기는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까지로, 평균 기온이 0℃ 이상이면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다.

파종 초기에 싹을 잘 틔우기 위해서는 흙덮기 1~2cm로 얇게 하고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을철 잦은 강우나 비 수확 작업의 지연으로 적기에 파종을 못한 경우 늦은 시기에 무리하게 파종하기보다는 이듬해 봄에 파종하는 것이 생산량 확보와 소득 향상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공공구매제도 만족하지 않는다

공공시장 의존도 높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노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전·세종·충남소재의 1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6곳은 지역 공공기관이 이행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전체의 공공조달시장 매출 의존도는 32.17%로 나타났다. 매출액 100억 이하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56.38%로 나타나, 매출액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19.41%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공공시장에 더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제도 이행 만족도조사에서, 대전·세종·충남 전체기업의 64.7%는

현재의 공공구매제도 규정 준수 및 이행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보통이하 응답)으로 응답해 2016년 조사에서 나타난 64.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항으로는 "소액수의 계약(추천) 제도(30.38%)", "소기업 우선구매제도(30.38%)", "적격조합 경쟁입찰 참여제도(11.39%)", "규모별 경쟁제도(7.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높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만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 소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공조달시장 수주량 변화에 대해서는 10곳 중 4곳(88.6%)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주된 감소 요인으로는 "기관 집행 예산부족(25.00%)", "타지역 업체 증가

(21.88%)", "공공구매제도 미준수(20.31%)", "대기업, 중견기업 입찰참여(15.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제한 강화(21.79%)", "정책지원 강화(21.23%)", "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17.88%)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구매 지원 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매출액이 적은 소기업일수록 안정적 판로인 공공조달시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지원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병매기자



홍두깨칼국수 온양3동 행복키움 동참

아산시 온양온천전통시장에서 착한 맛 집으로 유명한 홍두깨칼국수대표 이우미가 지난 2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폐지저금통 7개를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홍인순)에 기탁했다.

이우미 대표는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는 얇지만 많은 분이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도록 식후 거스름돈을 저금통에 넣어주셔서 이렇게 많은 모금액이 생겼다.

이것은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십시일반 모아 주신 귀한 성금이기에 뜻깊은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부탁

했다. 홍인순 단장은 "겨울철 추위와 외로움으로 이중 삼중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홍두깨칼국수는 2016년 2월 24일 온양3동행복키움추진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식당 테이블에 행복나눔 저금통을 비치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여 만 원 정도 모금 후원을 지속해주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배재대 '취업·통일'의식 고취

대전지역 명사 초청 특강 잇달아 개최

배재대학교(총장 김영호)는 대전지역 명사 초청 특강을 잇달아 개최해 '취업·통일'을 집중 조망하고 있다.

배재대는 22일 박병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초청해 '한반도 통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배재대는 지난해 통일부의 대전지역 통일교육센터 지정, 운영하며 '열린통일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특강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 필요성,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역설할 예정

이다.

이에 앞서 21일엔 이창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환경 변화 및 진로 설정 구축'을 주제로 2회에 걸쳐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배재대 대학일자리본부 '직업과 취업 전략'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특강은 배재대 학생과 대전지역 청년 등 3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강에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카페 굿터' 소개와 청년취업희망카드 등 대전시의 취업지원 정책이 자세히 소개되기도 했다.

이정복기자



아산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서울시부녀회연합회와 자매결연

아산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박윤규)와 서울시부녀회연합회(회장 조경혜)가 지난 20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농상생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경제적 소득을 높이고, 서울시부녀회연합회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지속적인 소비를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자매결연 체결에 따라 서울시부녀회연합회는 정기적으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소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민들에게 우리농산물 및 아산시친환경농산물 구매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많은 도시민들이 아산시친환경농산물 구매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농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

소랭이권역 종합정비사업 준공식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지사장 김남표)는 지난 20일 공주시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랭이권역 종합정비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해 사업관계자,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시덕 시장은 축사를 통해 권역추진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소랭이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준공을 축하하였다.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된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대산리, 내분리, 문천리, 산성리 일원에 소랭이활성화센터, 소랭이활성화마당, 신책로 및 정명대, 숲 하늘길 등이 조성되었다.

김남표 지사장은 "소랭이마을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창출 마련을 통해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민국 대표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여성가족부 '연도별 홍보비 집행 내역' 분석 결과

'양성평등문화 확산' 홍보 1.9% 불과

지난 5년간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한 홍보비 중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관련된 예산이 고작 1.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장, 송파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도별 홍보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집행한 예산 약 42억원 중 '양성평등문화 확산' 예산은 8,100만원으로 전체 홍보예산

중 2%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비 집행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족기치 확산 및 다문화가족지원 등 가족분야가 약 16억원으로 38.7%,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등 젠더폭력 분야가 약 12억원으로 29.3%, 청소년의 흡연·음주 예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분야는 약 9억 8천만원으로 23.5%를 차지했다. 이들 홍보는 주로 라디오, 케이블 TV, 일간지, 인터넷,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등을 통해 이뤄졌다.

반면, 지난 5년간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관련된 홍보는 아예 없다.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일간지를 통해 '양성평등주간' 홍보에 방 등 젠더폭력 분야가 약 12억원으로 29.3%, 청소년의 흡연·음주 예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분야는 약 9억 8천만원으로 23.5%를 차지했다. 이들 홍보는 주로 라디오, 케이블 TV, 일간지, 인터넷, 버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은오프라인 상에서 성차별, 혐오, 여성비하, 성폭력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비추어 생활 속에서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어 2017년에는 6월과 9월에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희망로드 캠페인' 2,300백만원, '온라인 성평등 실천 에티켓' 2,200만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환기자

난임휴가 3일 신설...신입사원도 연차 최대 1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보호 강화

최근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근로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난임 치료 시간을 보장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3일을 신설했다.

또한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근로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 휴가만 인정되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공포한 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우선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은 지난 2014년 519건에서 올해(10월 기준)는 5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태선기자



청양군체육회 주최·주관...회합의 장 마련

제14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성료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0일 군민체육관에서 청양군체육회 주최·주관으로 제14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군내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선교류 더불어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출라후프, 종합릴레이, 한궁경기, OX퀴즈 등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되는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행사 중에 청양 댄스스포츠팀, 난타, 밸리댄스, 최속자민요 공연으로 행사장의 열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체육대회 결과 종합우승은 청양읍, 준우승은 비봉면, 공동3위는 대치면과 화성면이 차지했으며, 이어진 노래자랑에서는 1위는 김기숙(은곡면), 2위는 김정옥(비봉면), 3위는 김원선(대치면)씨, 인기상은 김민아(화성면)씨가 수상했다.

청양=정성범기자

금관가야 추정왕궁지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 성과 공개

가야 대형 건물지군·의례용 유물 다수 발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금관가야 추정왕궁지로 알려진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에 대한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공개한다.

김해 봉황동 유적과 주변 일대에서는 지금까지 70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고상건물지(기둥을 세워 지은 건물 터), 토성, 집안시설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기존의 조사 성과와 '김해군읍지(金海郡邑誌)'의 수로왕궁터 기록을 근거로, 금관가야 중심세력의 실체를 찾고, 그 실증적 자료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김해 봉황동 유적 내의 추정왕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2017년도 발굴조사에서는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 봉황동 유적(동쪽 지점)의 전체적인 층위 양상을 확인하였

고, ▲ 가야 시기 대형 건물지군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 화로형토기, 통형기대(筒形臺, 긴 원통을 세워둔 모양의 그릇받침), 각배(角杯, 뿔 모양 잔), 토우 등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을 다수 발견했다.

층위 조사에서는 현재 지표면으로부터 4.5m 아래에서 기반층을 확인하였다. 문화층은 원삼국 시대 무너토기가 출토된 문화층, 가야 시기의 건물지와 소성유구(燒成遺構, 불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시설물) 등이 중첩된 문화층, 이후 통일신라 시기와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봉황동 유적 일대에서 시행한 수차례의 소규모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기반층부터 현 지표면까지의 전체 층위의 양상을 밝혀낸 것으로, 앞으로 유적 형성과정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백봉관기자

가야 시기 문화층 조사에서는 다수의 대형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건물지들은 대체로 지름 10m 이상으로, 일정 구역 내에 밀집된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건물지는 3호 건물지인데 바닥은 타원형이며 이 일대에서 가장 크고 기둥자리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벽주건물지이다. 봉황대 진입로 개설구간의 46호 주거지(1999년, 부산대학교박물관 조사), 창원 신방리유적 5호 주거지(2005년,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조사)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대형 건물지군은 그동안 봉황동 유적 일대에서 발견된 일반 생활유적과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로는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유물인 화로형토기, 통형기대, 각배, 토우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화로형토기는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수장급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모양이다.

백봉관기자

충남 도민평가단, 도 선진모델 탕정면 견학 방문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사례 살펴보는 시간 가져



아산시 탕정면(면장 유종희)은 지난 20일, 충남 도민평가단(위원장 양승일)이 탕정면을 방문해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와 면사무소의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도민평가단은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지적행정 분야에서는 2017년 하반기 방문지로서 신평면사무소와 아산시 탕정면사무소를 선정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백석대 유관순연구소, 정기학술대회

'독립운동 주도한 유관순, 김란사, 박순천 연구' 주제 개최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유관순연구소는 11월 21일(화) 오후 2시, 교내 본부동 소회의실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김란사, 박순천 연구'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첫 발표는 고려사이버대학교 고혜령 객원교수가 '독립운동가 김란사(하안사)의 삶과 활동'이라는 주제로 나섰으며, 백석대 류영하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우석대 최정순 조빙교수는

'유관순과 박순천의 3.1운동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해외한민족연구소 이경은 상임이사가 토론을 맡았다.

백석대학교와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진행하는 '유관순학교' 행사와 관련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2부 종합 토론에는 백석대학교 박종순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학술대회 토론을 이끌었다.

천안=김정환기자

2017 청소년 비즈쿨

제품전시판매전

미래의 CEO를 꿈꾸는 학생들의 상상력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청소년 비즈쿨 축제'의 장이 열린다.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2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7년 대전·세종·충남 청소년 비즈쿨 제품 전시·판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판매전에서 한창이어나는 손 세정제, 땀이 차지 않는 시계 등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들과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공예품, 천연비누 등 다양한 제품들을 현장에서 체험해 보고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비즈쿨 제품 전시 판매전은 대전·세종·충남 지역 18개 학교 6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전시·판매와 더불어 청소년들을 위한 창업특강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송병배기자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태의 책임 대학에 떠넘기나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공주대학교지부, 성명서 발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공주대학교지부는 지난 20일 교육부가 총장후보자를 적격 판정했음에도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이유로 총장 임용을 미루고 있고, 대학본부는 온라인투표 방식의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6일, 장기간의 총장 부재 상태에 놓인 공주대에 대해 종전 1, 2순위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도 교육부로부터 통보되었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 공주대학교지부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44개월 총장 부재 사태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하지만 올해 8월 교육부가 시행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2단계 내부절차를 대학본부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면서 학내 단체들과 대학본부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공주대학교지부는 박근혜 정권하에서의 공주대 총장 추천지에 대한 임명 거부는 이번 정부에서 적격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이유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늦어졌지만 기존에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구성원들의 총의에 의해 추천된 최우선 순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진행되어야 한다.

총장 후보자의 임명 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에 이제라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의사를 또 다시 묻는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교육부가 지난 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학본부 주관으로 온라인투표 방식의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공주대지부는 이미 법과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1순위 총장후보자에 대해 대학본부 주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또 다른 임의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미 적격으로 심사된 총장 후보자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의견수렴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 있을 총장임용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나 않을 지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박근혜정

부에서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한 민주적 총장임명을 촉구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장악의 일환으로 진행된 총장 임명거부사태로 대학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장기간의 총장 공백이 어떻게 대학을 망치는 지를 우리 구성원들은 이미 몸으로 체득한 바가 있다.

대학본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존에 학내를 대표하는 각 구성원 단체들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된 최우선 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서천소방서, 겨울철 난방용품사용 주의 당부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계속되면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매트, 전기난로, 전기온풍기 등 겨울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난방용품 등은 작은 부주의로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기난방용품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용 후 반드시 전원차단 및 플러그를 뽑아야 하며 전기매트 등은 사용 중 접히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천=김태선기자



태안소방서, 전 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전 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예산경찰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김장담그기행사 예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이성주)와 함께 18일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착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초청하여 겨울철 대비 김장담그기 행사를 통해 탈북민 등을 위로하고 김장 담그기를 전담하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청양소방서,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청양소방서(서장이일용)는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22일까지 출동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



인주면, 낚시동호인과 곡교천 정화 아산시 인주면(면장 채수경)이 지난 20일, 쓰레기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곡교천 하천·하구(해암리~금성리) 정화활동 및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에 낚시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독도의용수비대 제63주년 독도대첩기념식 개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21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63주년 독도대첩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우리 땅 독도' 산문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지진 발생 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

아산소방서, 국민행동요령 대한 홍보나서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지난 15일(수) 포항에서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 시 지진에 대비해 시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진 대응 교육을 부가 설명하고 119이동형체험차량 교육 시 지진체험을 통해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는 지진 대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1-2분간은 크게 흔들리는 시간이므로 최대한 몸을 책상 아래로 숨겨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집 안에 있을 경우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여야 하고 ▲집 밖에 있을 경우 대피 시에는 가방이나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공터나 공원 등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카메라 고발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리 서구 월평서로 30-2인도에 수거되지 않은 생활쓰레기가 가득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개인위생 철저히”

정부, AI 인체감염 막기 위한 대응책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전북 고창군 가림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라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전북 고창군에 있는 육용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

리본부는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질본은 지난 18일 해당 농장에 현장출동팀을 파견해 농장종사자, 삼척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급했고 인플루엔자 백신도 접종하도록 했다.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

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또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도 안내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AI 인체감염을 예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양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설치하고 긴급상황실 EOC를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선기자

“2017 제6회 한남대학교 산학협력포럼” 개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 위해 마련



한남대(총장 이덕훈)는 21일 '2017 제6회 한남대 산학협력포럼'을 개막했다.

오는 24일까지 한남대 56주년 기념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산학협력포럼은 대학과 산업계의 연계 강화와 성과확산을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한남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창업지원단, 국책사업기획단에서 주최했으며 첫날 개막식에는 정태희 가족회사산학협력협의회 회장(삼성정밀 대표), 편강의 대전 테크노파크 회장 등 각계인사와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생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덕훈 총장은 개회사에서 "한남대는 산학협력과 창업에 강점을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도빌딩 7층

“2017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선병원, 국무총리 표창상 수상



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 대 전선병원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메디컬코리아 2017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로써 선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상에 이어 5년 연속 유공포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포상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의료 시스템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 지방 종합병원이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또한, 선병원은 지난해 6천여 명의 외국인 환자가 다녀간 것을 비롯 지난 5년간 2만여 명 이상의

해외 환자를 유치했고,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15년 한국 의료기관 최초로 유럽 벨라루스에 의료시스템을 수출한 데 이어 러시아, 중동, 중국 등지로 의료시스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유성선병원은 국내·외 환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암, 심·뇌혈관, 부인암, 척추·관절, 치과 등 전문 진료센터를 강화하고자 내년 완공을 목표로 증축 공사 중이며, 중증집환 특성화 센터를 비롯 인공관절 수술을 배우기 위해 오는 국내·외 의사들의 수술 참관을 위한 유리 천장형 라이브 로봇 수술실, 지하로만 700대의 동시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등 철저한 환자 편의 중심 국제 병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박봉관기자

서산 의소대 우수활동단체 표창



서산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용철)가 지난 20일 우수활동단체 도지사 단체표창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서산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는 2017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시

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써왔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앞장서고 화재예방 캠페인, 예방순찰활동,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교육의 보급 등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화재 예방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직장인 87.8% “우리 회사에 낙하산 있다”

<인쿠르트>조사결과... 69.6% 회사생활에 어려움있어, “존재만으로 부담”

최근 공공기관채 채용비리에서 비롯, 유명기업들의 낙하산인사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포털 인쿠르트(대표 이광석)의 “낙하산 직원”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낙하산 직원’이 있다고 응답, 몇몇 응답자는 ‘내가 바로 낙하산’이라고 밝혔다.

먼저, 직장에 낙하산 직원이 있느냐는 물음에 재직자 87.8%는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그 중 35%는 ‘내가 바로 낙하산’이라고 커밍아웃 하기도 이들의 출신을 물어보니 ‘대표 친인척’(26.7%)이 1위에 올랐다. 이어서 ▲대표 자녀(차기 경영자)(15.6%) ▲대표 지인의 자녀(15.4%) ▲내부 직원의 친인척(13.9%) ▲거래처, 고객의 자녀(11.3%)가 5위권을 형성했다. 기타 답변을 통해서 ‘정계 인사 지인의 자녀, 국회의원의 소개로

입사’, ‘군체력단련장’, ‘대표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 ‘지역의원 자녀’ 등 화려한 라인업이 확인되었다.

낙하산을 타고 인착한(?) 포지션은 인턴부터 대표까지, 그야말로 직급 무관이었다. 의미없는 순위 싸움이지만 1위는 32.1%로 ‘사원·주임급’이, 다음으로는 ▲대리급(14.8%) ▲과장급, 간부·임원급(11.9%로 동률) ▲부장급(8.6%) 순이었다. 차장급(8.1%), 인턴(5.7%), 사장·대표진(3.4%), 고문(2.9%)이 뒤를 이었다. ‘대표 자녀는 차장급, 동생은 대표급’ 등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직급 세습의 예가 발견되기도.

이들 직원탓에 회사생활에 어려움이 따랐느냐는 질문에는 69.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1위가 “존재만으로 부담”(20.8%)이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사규에 어긋나는 행동들(16.7%) ▲담당 업무에서의 차별(14.5%) ▲회사, 직원들 관련 언급의 제약(13.7%) ▲승진 과정에서의 차별(11.2%) ▲대표진 관련 언급의 제약(10.1%)등의 불편함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업무 무능력’, ‘업무태도 불성실’, ‘일을 안해요’ 등 업무관련 불평은 물론, ‘라인 타기 중용’, ‘개인업무 지시’, ‘간부급이라 휘두름’ 등의 기타 답변들도 미루어 볼 때 이들로 인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현 직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평가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29.5%)라는 “중립적” 입장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각각 ‘일반 직원보다’ 업무 성과가 낫다(25.5%)와 ‘업무 태도가 나쁘다’(23.0%)의 “부정적” 평가가

485%로 과반수에 달해 이들 인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었다. “공정적”이라는 평가는 6.7%에 불과했다. “노력이 소용없는 사회가 되었다”, ‘대한민국에 낙하산 없는 직장이 있을까요?’ 등 만연화된 낙하산 인사에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광석 인쿠르트 대표는 “정상적인 채용평가과정을 통해 채용된 직장인들이 낙하산 인사를 대할때 겪는 불편함과 상대적 박탈감을 훨씬 클 것”이라며 기업들의 보다 형평성있는 채용을 주문했다. 한편, 본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진행, 총 참여자 수 499명 중 직장인은 471명(94.4%) 포함되어 있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52%를 기록했다.

아산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학생 모집

순천향대, 선문대와 손잡고 관학협력으로 추진



아산시가 순천향대, 선문대와 손잡고 관학협력으로 추진하는 2017년 겨울방학 초중학생 영어캠프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사회배려계층 학생은 순천향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선문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순천향대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학년)까지 일반학생 85명과 사회배려계층 학생 13명을 모집하고 캠프는 내년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3주간 통학형으로 운영된다. 수강료는 80만원이며 아산시에선 일반학생 40만원, 사회배려계층 학생 70만원을 지원한다.

선문대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학년)까지 일반학생 60명과 사회배려계층 학생 12명을 모집하고 캠프는 내년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2주간 합숙형으로 운영된다. 수강료는 100만원이며 아산시에서 일반학생 40만원, 사회배려계층 학생 87만5천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아산시는 영어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관내 대학교의 우수한 외국어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관학협력 초중학생 영어캠프를 지원해 왔다.

접수는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 530-1383, 1398와 선문대 외국어교육원(530-8080)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연무중, 흡연예방 토크콘서트 실시 연무중학교(교장 김태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금연 토크콘서트’에 충남대 학교로 선정되어 11월 20일(월요일)에 실시했다. 이 토크 콘서트는 유명 연예인이 전국 12개 학교를 찾아가 흡연 예방과 건강한 꿈을 실현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캠페인으로 청소년과 젊은 층의 흡연예방과 금연 동기를 강화하는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한다.

당진 한정초, 모래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당진 한정초등학교(교장 성기동)는 지난 20일 본교 한빛관에서 2017 시민과 함께하는 샌드아트 공연 ‘모래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공연이 있었다.

김안나 강사를 초빙해 멋진 공연을 했으며 한정초 학생, 학부모, 인근에 위치한 신평초, 진대초 학생들이 와서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한 마리의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야

기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신기한 모래그림을 통해 감성적으로 풀어낸 메시지가 있는 ‘친구 이야기’ 공연을 보였다.

이번 공연은 책과 연계해 음악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책의 내용을 보다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흥미로운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당진=최근수기자

정산고등학교, 정산의 멋과 흥을 알리다

풍물 동아리 ‘두레’ 버고를 국악제 전국 전통국악 경연대회 대상



정산고등학교(교장 진호용) 풍물 동아리 ‘두레’는 지난 18일 전북김제에서 열린 ‘제3회 버고를 국악제 전국 전통국악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학생부 사물놀이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풍물 동아리 ‘두레’는 지난 3월 창단해 지역사회의 풍물·사물놀이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강원규 강사의 지도하에 정산면 주민센터 풍물교실에서 웃다리 사물놀이를 배우고 연습하며 한국의 멋과 흥을 몸으로 익히고 있다.

지난 9월 8일에는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에 참가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와 같은 풍물 동아리 활동은 정산고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한국인으로서의 멋과 흥을 체득하고 즐기는 과정을 통해 남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고, 학교생활에 동기를 부여하며 자신감을 갖게 하는 소중한 학습경험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4개원 선정

대전교육청, 유아교육과정 우수성 입증... 아이들 행복감 증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부가 주최한 제3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공모전에서 대전교육청 소속 유치원 4개원(공립유치원 1개원, 사립유치원 3개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2년 전부터 우수 유아교육과정을 발굴·확산해 누리과정 운영 단계에서의 아이들 행복감 증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유아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유치원 교육 실현’이라는 주제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사전심사를 거쳐 추천한 유치원 중 교육계획서 공개검증 및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유치원 50개원(공립 25개원, 사립 25개원)을 최종 선정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공립단설산

내유치원(원장 이영자)의 산뜻한 가꾸기로 꿈·끼·사랑이 영그는 행복아이 green교육, 사립 해원유치원(원장 김원의)의 행복돌 가꾸기! 행복 열매 맺기! 행복 마음 담기, 사립 삼문사금강유치원(원장 김수경)의 하하하! 웃음속에 호호호! 피어나는 행복 이야기, 사립 잠례신학대학교 부속유치원(원장 송정원)의 협력하여 탐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돌 이야기 등 4개원이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50대 우수유치원에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시상금(500만원)이 수여되며,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우수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차질 없는 수능 준비 착착!

차질 없는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인한 후속대책과 수능시험 수험생 안전 확보 등을 안내하여 관내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차질 없는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수능시험 연기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과 대입전형 변경(순연) 일정을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se.go.kr)에 11.19(일)자로 공지하여 수험생의 궁금증을 바로 해소토록 조치했다.

‘후속대책’에는 ▲수험번호(수험표) 변경 없음 ▲시험장학교 변경 없음 ▲시험실 재배치 실시 ▲수험생 예비소집 22일(수) 10시 실시 ▲수험표 분실 시 재교부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입전형 변경(순연) 일정’에는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등 시험 이후의 세부내용을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11.20(월)에는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 발생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을 관내 고등학교에 공문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숙지토록 통보했으며, 세종소방서와 세종안전기술단의 협조를 받아 수험장학교 8개교에 대한 안전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상태 ▲건축물 구조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 시설안전에 대해 세밀한 점검을 마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했다.

세종=이정복기자

‘KAIST에서 과학과 만나다’ 진행

미담정학회,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미담정학회 공동대표 양승민, 최솔혜)는 21일 대전내동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KAIST에서 과학과 만나다” 프로그램을 대전 KAIST 본원에서 개최했다. “KAIST에서 과학과 만나다” 프로그램은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전국 각지 중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내동중학교 학생들은 KAIST 재학생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차세대 과학자로서의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병배기자

금강 미디어스쿨 학생들이 큰 꿈 그리다

공주교육지원청, 청와대와 KBS에서 현장수업 진행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21일 구수환 PD와 함께하는 금강 미디어스쿨을 청와대와 여의도 KBS 본사에서 현장수업으로 진행했다.

10월 21일부터 5회에 걸쳐 공주명정 학교에서 운영해 온 구수환PD의 열정에 이어 학생들은 오전에는 청와대, 오후에는 KBS에서 언론인에 대한 큰 꿈을 그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 고장 출신 박수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의 특별 초청으로 청와대 특별 관련 행운을 얻은 금강미디어

스쿨 28명의 참여 학생에게는 청와대 곳곳을 호기심 가득한 눈길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누비며 장래 희망을 더욱 크게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후 KBS 본사 구내식당 점심식사 후 이어진 KBS 현장수업에서 학생들은 말 그대로 장비, 시설 뿐 아니라 아나운서, 기자, 연예인 등 다양한 방송인과 함께 생생한 현장을 느끼고 체험하는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공주=정상범기자

충남 두드림학교 운영 역량강화워크숍

두드림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위해... 업무담당자 대상 개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두드림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1일 덕산리습스파게슬에서 도내 두드림학교 운영(교초) 교감, 업무담당자 5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두드림(Do-Dream)학교란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Do-Dream)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학교, 정책 사업 간 소통해 학생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학교다.

2014년부터 시작된 두드림학교는 현재 충남도내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29

곳, 중학교 52곳, 고등학교 22곳 등 103곳을 지정해 단위학교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다면적인 학습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학부모 상담, 학습장애 치료, 학습상담, 학습 코칭, 돌봄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학동초 마을의 씨앗을 키우는 두드림학교 운영사례, 논산중 마을·학습·꿈을 두드리는 두드림 학교 운영 등 우수사례 발표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보완점과 개선점을 찾는데 주력해 2018학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대전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사업유공 표창대 전수식 가져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가 21일 대학 30주년 기념 9층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으로부터 ‘대학적십자사 창립 112주년 기념 회장 표창대 전수식’을 가졌다.

● 동 정 ●●●

수능 종합상황 점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22일 오전 11시 수능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을 점검.

위·수탁 협약체결식



김석환 홍성군수= 22일 오후 4시 군수실에서 실시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체결식에 참석.

오케스트라 후원의 밤



윤석우 충남도 의회의장= 22일 오후 7시 공주문화원에서 열리는 '영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후원의 밤'에 참석.

세종시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 참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가한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을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균형발전시책인 청춘조직원프로젝트와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중 운영되는 세종시전시관은 청년 소통과 일자리 중심으로 꾸며진다.

특히, 청춘조직원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홍보존은 지역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구성했으며, 전시관 운영도 지역 청년들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모범도시"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람회 기간인 23일 청사 내 여민실에서 지역 주요 대표기업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한 '2018 세종 양질의 일자리 채용설명회'가 진행됐다.

세종=김정환기자

충남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2명 정규직 전환

“모범적 노사 모델 만들어 나아갈터”

충남도가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445명 중 1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도는 최근 도 관계 공무원과 노동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선 도지처행정국장)'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전환 대상으로 확정된 142명은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

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직종별로는 시범보조가 102명으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 21명, 취사 11명, 시설물 청소·관리 8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 도는 정원 책정·관련 규정 개정, 적격 심사 및 결격 사유 조회 등을 거쳐 내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체계와 후생복지 수준 등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299명은 △임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

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등 보충적 근로 △실업·복지 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대상자 등이다.

도는 정규직 전환 제외자 중 60세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담당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13명에 대해서는 추후 전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윤선 도지처행정국장은 “도

는 지난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대책을 수립·시행 중으로,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7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이번 정규직 전환은 도 소속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은 물론,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앞으로도 정규직 대상을 찾아 전환을 추진하고,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적인 노사 모델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환기자

도청신도시 중심상업 지역 임시주차장 조성

홍성군, 중심상업지역 1필지 임대... 향후 1필지 추가임대할 것

홍성군은 도청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내 남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 소유자로부터 임대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군은 방치된 주차장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관련 민원을 예방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중심상업지역 1필지(1,567.6㎡)와 우리마트 인근 1필지 등 2필지를 임대하여 100여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

할 계획이다.

이에 중심상업지역 내 홍북읍 신성리 563번지 토지 소유주로부터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마트 인근 1필지 토지 소유자와도 임대 협의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용지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군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주정차 안내 홍보인 6명을 배치하여 홍성읍과 도청신도시 지역에 주정차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홍보로 인해 주정차 민원 전화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많이 호응하여 주정차 문

화가 서서히 변화 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임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 주차장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홍성군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5만대를 돌파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충남도청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내포신도시 내 차량이 급증하여 도청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서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주정차에 몹쓸을 앓아왔다.

홍성=김정환기자

한국생활개선에신군연합회, 생활개선회 활동 성과보고회

회원 간 소통·결속 다져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21일 한국생활개선에신군연합회(회장 박경신) 주관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생활개선회 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개선회가 한 해 동안 활동해온 과제별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읍·면별 장기자랑 등 화합 한마당을 통해 회원 간 정보교류 및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황선봉 군수는 개회식에서 읍·면 생활개선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회원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특히 이날 개회식에서는 생활개선 과제교육 때 읍면 독거노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만든 방한용 목도리를 읍면장을 대표해 방한인 읍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읍면별 특성화 교육 작품과 우리음식연구회 쌀소비 축진을 위한 쌀가공품, 전통문화연구회의 규방공예작품 등 생활개선회 활동 결과물을 기술센터 세미나실과 로비에 전시해 성과를 알리고 공유해 발전의 계기로 삼았다.

박경신 회장은 “농업·농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생활개선회는 여성 지도자로서의 선도적 역할과 회원 간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번 성과보고회가 결속과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임기자

이동권 보장되는 품격있는 충남 만든다

이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열려

충남도는 21일 홍성 J컨벤션 웨딩홀에서 '이동권이 보장되는, 품격있는 충청남도'를 주제로 충남 이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양육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행복한 충남, 아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 선포식과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동 권익 증진 유공자로는 논산시 최영숙 아동복지팀장과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강우 팀장,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백순규 팀장,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아 상담원, 아람메디컬 강영규 원장 등이 도지사상을 받았다.

이어서는 아동 8명과 내빈 8명이 함께 단상에 올라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 발표돼 의미를 더했다.

행복한 충남, 아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은 △아동을 존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어떤 이유든지 차별 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념식에 이어서는 장진웅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의 '아동

인권의 이해 및 학대예방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아동인권 보장 확산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서울대 학교 김은실 교수가 '아동인권 강화를 위한 치료적 접근'을, 삼신보육원에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인권 강화를 위한 모형'을 각각 발표했다.

끝으로 아동권익 증진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강우 팀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각에서 본 '아동인권 확산을 위한 권리교육'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학대 사건 발생 시 빠른 처리를 위해 신고체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고인환 도 복지보건의료정책과장은 “미래 주역인 아동들을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를 구축,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예산군, 보험가입기한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예산군은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도입 및 운영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관광숙박업 포함), 주유소, 물류창고, 15층 이하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19종 시설이다.

가입 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허가·등록·신고·면허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안전관리과(339-7753)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양성임기자

daejeontoday.com

Advertisement for Enfren tires featuring a woman playing tennis and a tennis ball. Text includes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리얼'스럽게 달리는 기술', and '엔프렌 효과란?'. Logos for enfren and HANGLKOOK are visible.

우리/동/네

공공청사 창호교체 공사 착수

아산시, 총사업비의 40% 총 1억5600만원 국비 확보·사업 진행 중

충남 아산시는 공공청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둔포면사무소 및 온양2동 주민센터 창호교체공사를 지난주 17일 착수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청사 창호교체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의 40%인 총 1억5600만원의 국비를 확보

보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열손실의 25%를 차지하는 창호를 고기밀 시스템(PVC 프레임, 삼중로이 유리 적용)창호로 교체함과 동시에 외부 전동차양장치를 설치하여 냉·난방 에너지 열손실을 최소화해 에너지절감을 극대화 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현재까지 아산시는 2013년 건물에너지 진단을 통해 2014년 도고면사무소를 필두로 아산시청사(본관 및 별관) 및 7개 읍·면·동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이 사업은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연학코스' 중 하나로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하여 방방에너지가 최대 35%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 사업의 경우 각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벤치마킹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방장수마을 10호 탄생

당진시 보건소, 송산면 가곡 1리 지정

당진시 보건소가 당진시 송산면 가곡 1리(리)를 제10호 한방장수마을로 선정하고 21일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선포식을 가졌다.

한방장수마을은 교통과 거리 등의 문제로 한방의료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전문 의료인력이 직접 해당 마을을 방문해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10호 한방장수마을로 지정된 가곡 1리의 경우 보건소 조사 결과 마을 주민들의 건강습관 실천율과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은 낮은 반면 관점평생 의사 진단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보건소는 오는 12월부터 가곡 1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 1회 통증 해소 한방진료와 주 2회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기공체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로 활용하고 한의사와 한방 보조인력을 투입해 뇌혈관 질환인 중풍 예방을 위한 중풍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걷기 실천과 저염식 실천 등을 돕기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 보건소는 보건의로 소외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남양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청양군 남양면(면장 이원)은 21일 깨끗한 도로미관 조성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면은 최근 특정 사업주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도로변에 홍보플래카드를 우후죽순으로 게시해 거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철거에 나섰다.

또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물 게시대에 게시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율적 철거를 유도하고, 신규 발생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즉시 단속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원 면장은 "도로변 불법게시물은 도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부작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철저히 불법 광고물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깨끗한 아산만들기 대청소 실시

염치읍, 통장협의회 등 약 800여명이 참여

아산시 염치읍(읍장 마승만)은 지난 20일,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약 800여명이 참여해 깨끗한 아산만들기 범시민 대청소를 실시했다.

청소는 염치읍 탕정면 경계, 곡교천 뉴시터 주변을 시작으로 현충사 은행나무길, 충무교-국도45호 음봉방면까지 그동안 쌓인 생활쓰레기, 빈병 등 총 0.7톤을 수거했다.

마승만 염치읍장은 "적극적으로 깨끗한 염치읍을 만들기 위해 범시민 대청소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앞으로도 청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청소를 통해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밝고 쾌적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 실시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주민 적극적 참여 당부



태안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지역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군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내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및 군민을 대상으로 성금모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은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 하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며, 그동안 군민체육관에서 진행돼 온 순회 집중모금 행사(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조)는 올해 태안문화원 아트홀2층로 장소를 옮겨 내달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성금은 군청 주민복지과(041-670-2836)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모금할 수 있으며 물품접수도 가능하고 충남사회복지공

동모금회 ARS 기부(060-700-0130)로도 참여할 수 있다. 모인 성금은 지역의 특거노인과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온정어린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올해 태안문화원으로 장소를 옮겨 실시되는 집중모금 행사에도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서 총 4억 2989만 6천 원을 모금,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민간 긴급지원, 월동 난립수도 가능하고 충남사회복지공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용 문자로 확인하세요"

청양군,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주민 불이익 방지 효과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신고일자, 등기신청기간 등을 거래 당사자(매수·매도인)에게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거래 당일, 거래당사자에게 신고내역을 통지함으로써 신고대리인(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이 신고한 가격과 실거래가격이 달라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완료일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

청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안내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안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 기자

제13호 당찬 사람들 3대째 가업이은 김동교 씨 선정

젊은 감각으로 전통 막걸리에 6차 산업을 입히다



3대째 전통 막걸리 양조장의 가업을 이어받은 김동교(44세) 대표가 제13호 '당찬 사람들'에 선정됐다. 김 대표가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은 신평양조장은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당진의 대표 전통 양조장으로, 지난해 전국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금은 전국에서도 내로라하는 6차 산업 선도 사업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신평양조장이 늘 성공가도만 달린 것은 아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막걸리가 술 시장에서 점유율이 80%에서 8%로 곤두박질할 때 신평양조장도 어느 시골의 다른 양조장처럼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 대표는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결심에 다니던 회사를 사표를 내고 가업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가 처음 주목한 곳은 다른 아닌 서울의

강남이었다. 외국의 내로라하는 술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 오픈한 막걸리바는 언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나름의 성공을 거뒀고, 젊은이들에게 막걸리를 알리는 신의 한 수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는 6차 산업으로 막걸리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막걸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역사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꿈"이라며 "농업과 막걸리가 함께 꽃을 피우는 그런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00년의 전통에 젊은 감각을 입혀 막걸리의 화려한 변신을 꿈꾸고 있는 그의 당찬 스토리는 당진시 공식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주민 지적 갈등 해소 위한 '인문학 특강' 열려

'역사저널 그날' 신병주 교수 초청·24일까지 접수



태안군이 지역민들의 지적 갈등 해소를 위해 명사를 초청, 인문학

특강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립중앙도서관은 오는 28일 저녁 7시 군립중앙도서관 4층 1강의실에서 'KBS 역사저널 그날'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유명세를 떨친 신병주 교수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군립중앙도서관이 올해 마련한 첫 번째 특강으로, 군은 지난해에도 성우 배한성 씨를 초청해 인문학 강의를 갖는 등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마련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인문학 특강에서는 신병주 교수가 '세종이 꿈꾼

세상'이라는 주제를 선정, 조선왕조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의 삶과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24일까지 군립중앙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1-670-5984)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고 수강인원은 선착순 80명으로 태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센터 지식정보팀(041-670-59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태안=김정환기자

동정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김홍장 당진시장=22일 오전 10시 당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초·중교 신설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 참석.

가족화합대회

한상기 태안군수=22일 오전 11시 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5회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에 참석.

간담회

윤주역 청양교육장=22일 오후 1시 30분 청신중에서 열리는 청양수학축제 주관 후 오후 5시 청양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학교체육지역협의체 간담회에 참석.



온양4동 사랑의 물품나눔 행사 실시

아산시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박길남)은 지난 20일, 온양4동의 복지허브화 활성화를 위한 회의 및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행복키움추진단 월례회의를 마친 후 손수 준비한 밀밭찬과 아산시기초푸드뱅크 연계를 통해 지원받은 식료품(음료, 즉석식품, 간식류 등을 관내 소외계층 30가구에 가정방문해 전달했다. 박길남 단장은 "추운날씨에도 적극적으로 나눔 실천에 참여해주신 추진단 단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은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준 농장은 "추운날씨에도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해주시는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 단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온양4동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겨울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

청양군 청년면, 소득안전도모위해

청양군 청년면(면장 최율락)이 겨울철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은 지역에 따라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인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에 두는 것이 좋다. 청양군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제고할 위해 올해부터 군비 지원을 확대해 가입자의 자부담 비율을 절반(20%→10%)으로 낮추고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등)의 관제기간이 오는 12월 1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의향이 있는 농가는 서둘러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제10회 보육인의 밤 행사 열려

계룡시, 24일 오후 6시 30분 계룡고등학교 대강당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4일 오후 6시 30분 계룡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제10회 계룡시 보육인의 밤 기념행사와 더불어 2017년도 보육 교직원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룡시 보육 교직원의 화합과 힐링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Begin again 다시~시작'이라는 주제로 계룡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송미선) 주관으로 관내 어린이집 46개소, 보육교직원 25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 날 행사에는 최홍묵 시장을 비롯해 김용락 시의회 의장, 조지연 충청남도도의회 부의장, 김원태 도의원,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지역기관·단체장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를 빛낼 예정이다.

1부 기념행사는 보육교직원 및 유공자 표창,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전달, 환영사, 축사 등이 진행되고 2부 시간에는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신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최홍묵 시장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맡아주는 교직원들이 있기에 계룡시의 미래가 밝은 만큼 자부심으로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어 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계룡시 어린이집연합회는 관내 46개소 어린이집, 250여명의 보육 교직원 등이 참여한 단체로 보육문화 확산과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화합 등에 힘쓰고 있다.



서천군 AI 방역 총력 대응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전북 고창 오리농가의 AI 의심축이 19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가금류 사육농가 52호(230만수)에 대하여 전담 공무원을 배치 주 2회 이상 예방 활동 및 축사 동별 장화, 발판소독조 등 방역자재를 공급하고 철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서천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 금강하구 철새도래지 및 농가 주변 순회 소독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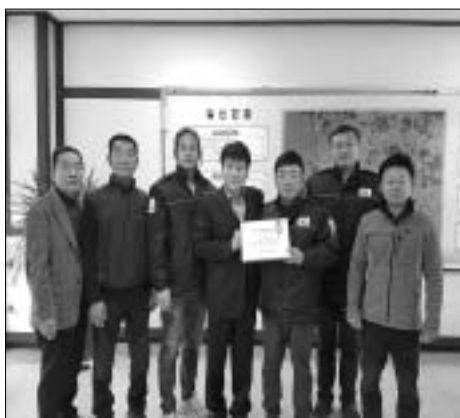
또한 20일에는 전북도와 연계한 금강하구 주차장에 거점소독시설을 신속히 설치하여 24시간 운영중에 있으며, 부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박여중 부군수는 "서천군은 지금까지 단 한건의 AI도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앞으로 철저한 사전 방역을 통해 AI 유입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축산농가는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고 철저한 소독 등 자율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축산 관련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줄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서천군 농림과에 신고(041-950-4384)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좋은이웃18호 장항읍자율방범대 선정

서천군, 소외계층 어르신 15세대 백미 40kg씩 전달



장항읍행정복지센터(읍장 최창근)는 지난 20일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실시한 장항읍자율방범대(대장 장용근)를 '좋은이웃 18호로 선정'하고 좋은이웃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항읍자율방범대 장용근 대장을 비롯한 25명의 방범대원들은 매월 꾸준히 적정한 130여 만원의 회비로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실시로 소외계층 어르신 15세대를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고 백미 40kg씩 전달했다.

최창근 장항읍장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봉사과 더불어 어르신들이 추운 연말 따뜻한 나눔의 행복을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항읍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식시간에 인적이 드문 우범지역, 학교 주변 등 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범죄예방활동과 청소년 선도도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로 범죄 없는 지역사회의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논산시 취업창업박람회 '대성황'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부제로 CJ제일제당, 한미식품 등 40여개 기업참가

11월 21일 오후 2시, 논산시 건양대학교에서 열린 2017 논산시 취업창업박람회장은 좋은 인력을 찾으려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대거 몰린 이날 박람회장의 취업열기는 뜨거웠다.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취·창업 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7 논산시 취·창업 박람회'가 기업인, 구직자들 모두 진성시를 이루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박람회는 CJ제일제당, 한미식품 등 40여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개그맨 김영철씨가 진행하는 Job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채용관 ▲취업준비관 ▲정보제공관 ▲창업관 ▲창업상담 및 컨설팅관 ▲Job 콘서트 등 총 6개 테마 70여개 부스로 구성했으며, 취업과 꿈을 이루기 위한 3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Job 콘서트'는 시민들과의 소통시간을 마련, 큰 호응을 얻었다.

채용관에서는 참여한 40여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현장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을 하거나 2차 면접을 약속했으며, 취업준비관과 정보제공관은 두의면접, 이력서 클리닉, 직업적성탐색, 1:1 취·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창업관과 창업상담 및 컨설팅관에는 건양대학교 창업동아리 및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동아리가 참가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제품을 소개해 예비 CEO의 면모를 보였다.

시는 취·창업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미 취업한 구직자들에게 추가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취·창업박람회 대한 기업과 구직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우수 인력 양성 등 우수한 인적 자원 개발과 기업유치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공무원 역할 '톡톡'

이용률 지난해 동기 대비 9.6% 증가, 전체 발급량 185% 차지



시민편의를 높여주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증가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 10월말 기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된 민원 처리건수는 41만2,798건으로 일평균 1,358건, 지난해 동기 37만6,478

건과 대비해 9.6% 증가했다.

올해 무인민원발급기가 시청, 신방동, 불당동, 천안추모공원, 천안세무서, 천안농협 쌍용2동지점 등 6곳에 추가로 설치돼 현재 관내에는 4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가동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47대 중 동남구 지역 23대, 서북구 지역에 2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시 산하 기관에 30대, 법원·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17대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별 처리건수는 주민등록증·초본 24만5,124건(59.4%), 가족관계증명 8만2,741건(20%), 국세청 증명 3만1,424건(7.6%)순으로, 국세청 증명 서류는 지난해보다 5배 증가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건수가 높은 상위 5곳은 부성동, 성정2동, 신

안동, 신방동, 청룡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루 평균 7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실적의 32%에 해당되는 수치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시 민원발급량의 약 185%를 처리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와 온라인 민원24를 합한 전자민원 발급량은 천안시 전체 제증명 민원의 약 45.6%에 해당한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온라인 민원24를 이용하면 시민들이 기다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민원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도 단순한 민원업무 처리량이 줄어 다른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분영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홍보 등을 통해 단순한 제증명 발급 이용률을 높여 청구에서 제증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의 메카 부여"

2017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2개 부문 수상

부여군군수 이용우는 보건복지부 주최 2017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2016년 2개 부문 수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 및 시범사업 우수사례 2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7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2017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2016년부터 지속적인 지역사회 연계협력력을 통한 주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방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의 건강행태 개선프로그램을 인정받아 2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프로그램을 담당한 부여보건소

는 2016년 노인어르신 대상 '뇌건강 OK!교실'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큰 오응을 얻었으며, 2017년에는 대상지를 확대하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상대로 '최고의 한방! 행복바이러스 퍼뜨리기 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한방프로그램을 접목해 정서적, 육체적 심신안정에 초점을 맞춰 8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인식변화 및 건강생활실천 유도 프로그램인 한방은 나이트어르신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던 인식을 깨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에게 대한 새로운 건강증진방법의 시작을 알렸다.

그동안 보건소는 꾸준히 대상자



별로 중년여성 건강가꾸기교실(중년여성 대상), 사상체질건강교실·한방(One)로 뇌 건강 OK!교실(노인대상) 등 다양한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환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

의 결과는 다양한 한의약적 접근으

부여다문화가족 "이제 우리도 부여군민입니다"

다문화가족 400여명 참석... 행복나눔 한마당 행사 열려



부여군군수 이용우는 지난 18일 부여군유스호스텔 실내경기장에서 다문화가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행복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

했다.

부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흥겨운 음악과 화려한 의상으로 중무장한 필리핀의 전통춤과 부드럽고 단아한 전통음악에 맞춘 베트남 전통춤, 남국의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매력적인 무대로 큰 호응과 환호를 받았던 벨리댄스 등 다문화가족들이 선보인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진 수품사례 발표에서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에 참여한 우경씨는 10개월 동안 일요일을 반납하고 교육에 참여해 얻은 성과와 보람에 대해 소감을 발표했다.

한편, 장항읍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식시간에 인적이 드문 우범지역, 학교 주변 등 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범죄예방활동과 청소년 선도도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로 범죄 없는 지역사회의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어서 수품사례 발표에서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에 참여한 우경씨는 10개월 동안 일요일을 반납하고 교육에 참여해 얻은 성과와 보람에 대해 소감을 발표했다.

한편, 장항읍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식시간에 인적이 드문 우범지역, 학교 주변 등 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범죄예방활동과 청소년 선도도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로 범죄 없는 지역사회의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한편, 장항읍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식시간에 인적이 드문 우범지역, 학교 주변 등 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범죄예방활동과 청소년 선도도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로 범죄 없는 지역사회의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한편, 장항읍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식시간에 인적이 드문 우범지역, 학교 주변 등 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범죄예방활동과 청소년 선도도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로 범죄 없는 지역사회의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통정

천안학강의



구분영 천안시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성환을 매주리 스포츠센터 부지에서 열리는 북부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하고 오후 1시 30분 호서대학교에서 천안학강의.

여성자치대학



황명선 논산시장은 22일 오후 2시 건양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6기 논산시여성자치대학에 참석.

농업대학 졸업식



최홍묵 계룡시장은 22일 오후 2시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농업대학 졸업식 참석.

희망의대화



노박래 서천군수는 22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여성 문화 강좌에 참석, 오전 11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사랑나눔리 물품 전달식에 참석,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년도 11월총 희망의대화에 참석.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대상



이용우 부여군수는 22일 오전 11시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대상.



계룡시 '이동학대 근절' 캠페인 펼쳐

사회적 인식 제고·적극적인 대처 유도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20일 업무사거리 원형광장에서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을 열었다.

계룡시 드림스타트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보육교육분과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이날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주변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폭력STOP, 사랑GO'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학대 신고번호와 신고방법을 적극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의미하는 문양이 새긴 가방과 기념품을 배포했다.

또한 만0세~만12세 아동 중 지역 내 가정 환경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이나 복지사각 지대에서 소외되는 아동은 없는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드림스타트 아동발굴' 홍보도 함께하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정

겨울공주군밤축제조직위 위촉식



오시덕 공주시장은 22일 오후 3시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겨울공주군밤축제 조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김동일 보령시장은 22일 오후 1시 20분 보령문화에 슬하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오후 2시 웨스토피아에서 열리는 인권 감수성 향상 워크숍 참석.

물관리 현장설명회



이완섭 서산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노인지도자 간담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에 참석, 오전 11시 서산관광공원에서 열리는 물관리 현장설명회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동원감사 강평에 참석, 오후 5시 서산대산항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특화작목 시범사업 평가회



박동철 금산군수는 22일 오전 10시 기술센터서 열리는 특화작목 시범사업 평가회에 참석.

서산시 AI 선제적 방역활동 사활

5일장 출입 차량 GPS 장착·차량 집중 점검·가금류 이동 중지

서산시가 AI 등 반복되는 가축전염성질병 발생의 대비로 청정도시 사수를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에 사활을 건다.

시는 AI 등 가축전염성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한발 앞선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 고창의 농가에서 발견돼 지난 20일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AI 바이러스는 H5N6형으로, 기존보다 폐사율이 높고 전파 속도도 빨라 전국적인 확산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서산 전수만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 동지를 틀고 있어, AI가 발생하면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 속에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청정서산 사수를 위한 AI의 철동방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1일까지 가금류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 농장, 차량, 작업장에 긴급히 문자를 보내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축협 공동방제단과 함께 철새도



래지를 비롯해 소규모 농가, 가든형 식당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우시장과 서산 5일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GPS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여기에 기존에 철새도래지에서 2개소가 운영 중이던 방역초소를 예천동 우시장에도 설치하며, 가금류 사육농가에 생체화 40톤과 소독약 3,000kg를 긴급 지원할 예정이

다. 방역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완섭 시장은 "AI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방역활동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농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예찰 및 소독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서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 수립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안내문 배포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시는 겨울철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주민행동요령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부하는 한편, 상황 근무반을 편성·운영해 동파에 취약한 중점관리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계량기 보호통 속에 한 묶음이나 보온재를 넣고 △야외에 노출된 수도관(수도꼭지 포함)은 보온재로 덮거나 현웃으로 두툼하게 단단히 감싸고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물을 조금 틀어 놓아야 한다.

이미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때에는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가거나 헤어드라이어 약한 바람을 이용해야 열 손상으로 인한 파손을 막을 수 있고 계량기가 얼어 우리가 파손되면 바로 시청 수도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주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박주희 팀장은 "매년 옥내 수도시설 동파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많은 만큼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예방 요령 안내에 따라 수도시설의 보온과 동파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도 송·배수관, 수도계량기 등이 동파된 경우, 평일 주간에는 공주시 컨택센터(1899-0088)로, 야간이나 공휴일·주말에는 공주시청 수도과(041-840-8830, 2346)로 신고하면 된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공주역 고객대기실에 갤러리 조성

"세계유산도시 공주 이미지 높이는 계기 기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역사 2층 승강장 대기실에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국내 유명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공주역이 이용객들로부터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사랑받기를 희망하는 국내 유명 작가의 작품 무상기증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현재 16점의 작품이 전시돼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백양 박태옥 화백의 그림은 동양의 기와 맥을 화폭에 담아 우리 민족의 일을 표현한 작품들로 동양의 피카소,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는 그녀의 수준 높은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시즈별로 다양한 주제로 공주 지역 작가들의 각종 예술작품을 연중 전시할 계획이다.

심규덕 정책사업과장은 "공주를 찾는 첫 관문인 공주역을 문화와 예술역으로 조성해 열차 이용객이 대기시간 동안 아름다운 공주와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유산도시 공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서산시, 내년 1월 1일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서산시는 2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및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의 대상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체육시설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불법 주차와 위·변조, 양도·대여 등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 방해 등 12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적발되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표지에서 모양과 색상이 원형으로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 갱신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기준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김정환기자

보령시 녹도 포구에 항일의병 전적비 제막

구한말 일본군 수비대 등 10여명 전멸 현장 재조명 계기 마련



보령시는 21일 오전 녹도에서 정원춘 부시장과, 임준순 보령문화연구회장, 김성룡 녹도리 이장 등 지역주민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일의병 전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항일의병 전적비는 구한말(舊韓末) 주목망으로 호환을 누렸던 녹도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6명의 한국 군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조사를 나온 일본군 순사와 수비대 병력 등

모두 10여명을 이 곳 녹도 포구에서 사살한 정미의병(丁未義兵) 활동상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전적비는 1907년 9월 8일 당시 의병들과 일본수비대의 격전지인 오전면 녹도 포구 현장에 세워져 그 의미가 더해졌으며, 역사적인 고증과 함께 항일 의병 전적지로서의 숭고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령=김태성기자

녹도에서의 항일의병 활동에 대하여 자칫 문헌만 봤던 사항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배경은 보령문화연구회에서 자료 수집과 지역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 '보령문화 제25집'을 발표했으며, 언론보도와 기록 및 문헌 등을 통해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비 1000만 원을 들여 건립함으로써 늦게나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빛을 보게 됐다.

정원춘 부시장은 "비록 110년 전의 일이지만 구한말 보령지역에서의 항일의병 전적지로서의 고귀한 현상이 잊히지 않도록 이제라도 전적비를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의미가 남다르다"며 "녹도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녹도 포구에서의 구한말 항일의병 활동을 전개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내외에 알리고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 지정 신청, 안내관 설치 등 본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선정

금산군, 10억원 투입... 갯잎산업 경쟁력 제고

금산군이 '2018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고품질 갯잎의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 유지와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림부 전국 공모 사업에 참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

금산군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은 2019년까지 2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갯잎관련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게 된다.

통합마케팅조직, 만인산농협, 갯잎 농가 등의 계열화된 사업체제로 지역 경제를 리드하는 명품 갯잎산업을 육성에 무게를 둔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가 조직화 교육 등

역량 강화를 비롯해 갯잎 연작장해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 농기계 운영, 갯잎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 육묘장 설치, 갯잎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갯잎 가공공장 설립 등 갯잎 주산지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금산군 고품질 갯잎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신뢰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전정민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and website www.daejeontoday.com.

Large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architectural photos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Includes contact info: FAX. 042. 624. 1204, HP. 010.7472.4972.

오늘의 하이라이트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30분)



세니는 돈을 구하려 집으로 찾아갔다가...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홍주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케이블 명화

다크나이트 라이즈 (OCN 오후 4시20분)

숫아오른 배트맨 마크가 뒤덮인...

아가씨 (채널CGV 오후 10시30분)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 이모부...

다크나이트 라이즈 (OCN 오후 4시20분)

숫아오른 배트맨 마크가 뒤덮인...

홍주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모든 업무에서...

돌아온 복단지 (MBC 오후 7시15분)



은여사 긴급체포라고 하세요!

아가씨 (채널CGV 오후 10시30분)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 이모부...

아가씨 (채널CGV 오후 10시30분)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 이모부...

아가씨 (채널CGV 오후 10시30분)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 이모부...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and program titles.

당진시 불령협회장기 클럽대항전 불령대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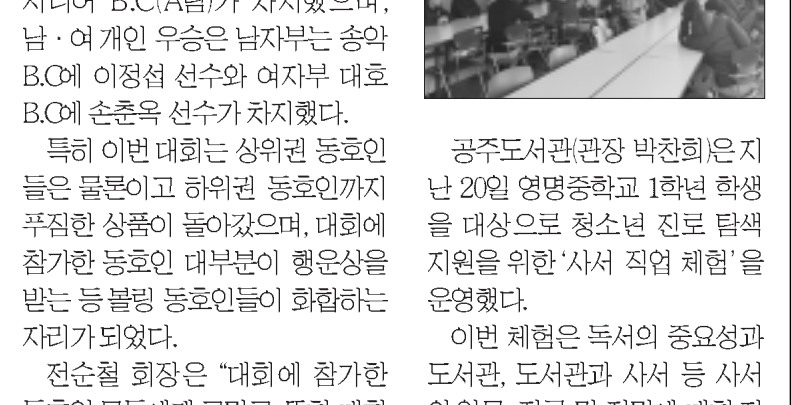
총 78개 팀(234명) 참가, 역대 최고 참가팀 기록 남겨



당진시 불령협회(회장 전순철)가 지난 19일...

공주도서관 청소년 진로 탐색 사서 직업 체험

공주도서관관장 박찬희는 지난 20일...



공주도서관관장 박찬희는 지난 20일...

제 18회 청양군수기 불령대회, 족구대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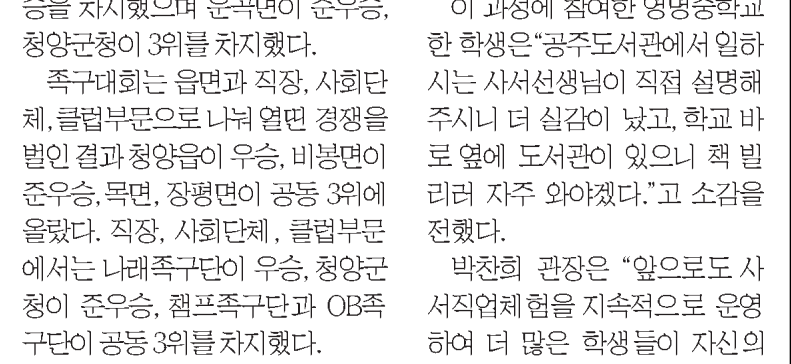
청양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화합 위해 개최



청양군수기 이석화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 18회 청양군수기 불령대회, 족구대회 성료

청양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화합 위해 개최



청양군수기 이석화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 & 위성 방송

Table with columns for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and program details.

천안교육지원청, 2017 천안시 초등 독서 나눔 인문학 콘서트

인문교육으로 사람·세상·미래를 잇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목)은 21일...

천안교육지원청, 2017 천안시 초등 독서 나눔 인문학 콘서트

인문교육으로 사람·세상·미래를 잇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목)은 21일...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with contact info (042)538-3030



당진교육지원청, 탐동초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은 21일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탐동초 정문과 후문 등 곳곳에서 녹색어머니회 교통도우미, 당진교육지원청 교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영상대, 국립공주병원과 정신건강 증진 업무협약 체결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가 지난 20일 국립공주병원(원장 김영호)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한국영상대는 국립공주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재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온주중합사회복지관, 삼성 온양캠퍼스와 김장 나눔행사 국내 이머스 온주중합사회복지관(관장 채종병)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센터장 최정혁)와 함께 2017년 김장김치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범죄퇴치 순찰본부,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실시 한국범죄퇴치순찰본부(이사장 장행순)는 지난 19일 대전 동구 신내동 일원에서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및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했다.



대전보훈청, 국가보훈대상자 기업체 채용설명회 개최 대전지방보훈청은 21일 오후 1시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체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케이티엔씨, (주)한화 대전사업장 등 대전 지역의 우수기업체 인사담당자 및 책임자를 초청했다.



온양3동 예뻐어린이집,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 아산시 온양3동 예뻐어린이집(원장 이은순)은 지난 20일,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38여 만원을 희망2018나눔 캠페인 이웃성금으로 기부했다.

한밭대 블로그기자단 출범... 본격적 SNS 홍보활동 돌입

“홍보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가 20일 오후 5시 '블로그기자단 임명장 전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SNS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한밭대 블로그 기자단은 학생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하기 위해 조직됐다.

기자단의 명칭은 '로그인더한발'로 '한밭대에 접속하는 창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난 9월 5개팀 7명의 학생을 선발해 10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수습기간을 거쳤다.

한밭대는 앞으로 이 기자단을 통해 블로그 등의 SNS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대학 내부메신저, 외부와의 연결 창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기자의 시각에서 학과, 학생 단위의 다양한 학내 소식을 발굴해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학내 소통에 기여하고, 외부에서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한밭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장은 "재미있고, 다양한 학내소식들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고, "국립 한밭대학교는 훌륭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자부심이 있다. 블로그 기자단 활동이 우리 대학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면 물론이고, 넓은 시야를 가진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밭대 이진화 기획과장은 "블로그 1달간 수습기자로 활동했을 뿐인데 우리 대학 블로그의 조회수가 4배 이상 급증했다"며 "블로그기자단이 우리 지역 중심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잘 소개해 한밭대 학생들의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명장 전수식에서 송하영 총장, 이정복기자

호서대 중앙도서관 김선두 초대전 개최



호서대학교(총장 신대철)는 아산캠퍼스 중앙도서관 갤러리에서 지난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느린 선의 꿈과 노래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김선두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캠퍼스 주변 부족한 문화적 인프라를 지원하고, 캠퍼스 속에서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매년 국내외 유명 작가를 초대회 전시회를 열고 있다.

김선두 작가는 조선 화단의 거장 오윤 장승업의 일대기를 다룬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서 자문 및 장승업 역을 맡은 최민식의 그림 대역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다. 수묵과 채색, 필선과 색채의 균형을 모색하며 전통 회화의 본질을 파고든 전통 한국화 기법의 대가기도 하지만,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 우리나라 현대회화를 이끄는 주요 작가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는 <별을 보여드립니다> 연작은 "별들은 왜 낮에는 보이지 않을 까?"라는 작가의 물음으로 시작해 빛(현상)에 가려 보이지 않는 별들(본질)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그림으로 완성된 것이다.

아산=리향주기자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백제점

사랑의 김장김치로 소외계층 도와요



삼성디지털프라자 백제점대표 정해남은 지난21일 공주시 웅진동 공산성 앞 매장에서 '2017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백제점의 후원으로 공주관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200상자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김장김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백제점과 직접 봉사자들이 직접 담가 지역사회 온정이 필요한곳에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삼성디지털프라자 백제점 정해남 대표는 "우리 주변에는 소외계층이나 독거 어르신 등 다가오는 겨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 많아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시작했다"며 "따뜻한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디지털프라자 백제점은 15년째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용품 나눔, 김장김치 나눔, 연탄나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사업실, 직무교육 실시

충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은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의 일환으로 지역 보건진료체계 최전선에서 근무하게 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및 지역보건진료체계의 안정적인 구축과 연계를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지역보건소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한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이론교육(8주), 임상실습(12주), 현지실습(4주) 등 2017년 10월 2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24주간 진행되며, 교육인원은 중부권지역 24명이 참여한다. 충남대병원에서는 이론교육(4주)을 실시하고, 이후 의료원과 배치예정 보건소에서 실습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관계자들은 "보건진료소는 지역 보건진료체계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으며, 홀로 근무하는 의료은 개척자들"이라며 "중부권 공공보건의료의 역량강화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서산시, 사랑의 땀감나누기 '눈길'

지역 취약계층 90여 가구 대상... 260여 톤 지원

서산시는 21일 지역 취약계층 90여 가구를 대상으로 260여 톤을 지원하는 사랑의 땀감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를 비롯해 서산시 산림조합, 석남동행정복지센터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된 잉여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땀감을 만들고 석남동의 취약계층 87가구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앞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받은 87가구에 땀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겨울철 땀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훈훈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많은 이웃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산림재해 위험감소, 산불예방, 고용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의 효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백석문화대학교 - 이스타항공

'상호교류 협력 업무 협약식' 개최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장종현)는 21일 교내 자유관 2층 회의실에서 이스타항공과 상호교류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 유진선 안전총괄팀장, 객실사무장, 승무원 등과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괄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을 맺은 양 기관은 앞으로 ▲백석문화대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교육, 봉사, 연구활동 수행 시 인적자원 상호 교류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정책자문 등의 산학협력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송기신 총괄부총장은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이스타항공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오늘 협약으로 양 기관이 함께 승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체결식 후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는 백석문화대 공과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스타 항공을 통한 항공사 진로탐색'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천안=김정환기자

부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채수근)는 20일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등 부산면 사회봉사단체 주관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18일, 19일에 배추를 수확하고 절인 후 20일에는 800여포기의 김장을 담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11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구암리 김기찬(주민자치위원장)씨와 시동리 조병선(새마을지도자)씨가 배추 800포기와 500개의 무를 지원했고 부산면 각 사회단체에서는 재료비를 지원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나눴다.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주관한 김기찬 주민자치위원장과 임장재 새마을협의회장, 김형에 적십자회장은 "한 사람으로 보면 조그만 봉사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사랑과 정성을 보태니 부산면 전체가 훈훈해진 것 같아 행복한 하루였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24-1 동원빌딩 11층

건강 칼럼



서운형
글로벌튼병원 원장

간혹 몸이 마음을 미처 따라주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좋아하는 운동도 입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변하는데,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스포츠 손상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동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대부분은 그것을 간과하고 예전에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만 기억한 채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의 랑을 따지는 것은 좀 어렵지만 아주 쉽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운

동을 하면서 아프거나, 운동 이후 지속되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발생되는 경우는 운동의량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운동의 중요성은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스포츠 손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스포츠 손상을 관리하는 스포츠 의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세 가지로서 첫 번째는 예방이며, 두 번째는 부상 후 적절한 진단이며, 세 번째는 적절한 치료다.

여기서 적절한 치료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운동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동을 중단하고 치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구별해야 할 것이며, 치료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수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뉘며,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등등 결정을 하는 것이다.

운동도 관리가 중요하다

첫 번째, 예방은 흔히 운동 전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하는데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프로선수들은 동계훈련도 하지만 평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주된 운동을 한다. 주로 하고자 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기본적인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근력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로 한다. 특히 나이가 50이 넘어서면 근육의 감소와 더불어 근력운동의 효과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해야지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으로 평생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근력 운동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건강검진을 1년 혹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처럼, 근력,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심폐기능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간적 무자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 운동선수들 위주로 행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좀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예방적 차원의 검사가 부상을 당하였을 때 회복시키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스포츠 손상 후 적절한 진단이다. 그러나 적절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시간뿐만이 아니라, 비용적인 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한다. 불필요한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비용 효율적인 것을 판단해서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확한 검사를 할 때는, 비용이 늘더라도 MRI 혹은 CT, 동위원소 검사, 초음파 검사들 중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여 검사해야 한다.

세 번째, 적절한 치료다. 비 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시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 치료 이후 꾸준한 재활 치료를 함으로써 부상전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다시 운동에 복귀할 확률이 아주 높다.

정리해보면 운동 만큼 좋은 것이 없지만 부상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설

규제프리존 팽개치고 혁신성장 외치나

여권이 지난주 열린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통해 덩어리 규제 해제를 필자로 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모양이다. 당정청은 전 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었다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서는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책 기류가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뺀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회의에서 완전한 결론을 내지 않아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새 정부 들어 여당은 원만한 국회 운영과 지방선거 대비 차원에서 규제프리존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왔다. 야당 또한 여당과 접점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긍정적 견해를 밝혔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다. 그런데도 여권의 기류가 돌연 바꿨으니 청와대의 독주가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부 특혜성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보지도 않고 실효를 운운하는 것은 오만에 가깝다.

지금과 같은 규제환경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결실이 나올 수 없다. 개별법 하나하나의 규제를 풀어 혁신 성장한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얘기다. 기술발전은 빛의 속도인데 법과 제도는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간의 지체 현상을 극복해보자는 것이 규제프리존 아닌가. 새 정부가 신산업에 도입하기로 한 규제 샌드박스 역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라면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선 공약에서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친 게 그저 빈말이 였나.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 있어야

우리나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식대기자보다는 여전히 부족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장과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의 장기기증자는 2013년 2천422명, 2014년 2천476명, 2015년 2천567명, 2016년 2천865명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13년 416명,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 등으로 늘었다. 폐와 연골, 근육, 피부, 인대, 심장 판막, 혈관 등의 인체조직 뇌사 기증자도 2013년 128명에서 2014년 115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48명, 2016년 157명으로 상승했다.

그렇지만, 장기나 인체조직을 이식받고자 대기하는 환자규모와 비교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다.

이식대기자는 2013년 2만6천36명, 2014년 2

만4천607명, 2015년 2만7천444명 등에 이어 2016년에는 3만286명으로 3만명을 넘었다.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는 9.96명으로 스페인 36명, 미국 285명, 이탈리아 2252명 등과 견줘서 많이 낮다.

질병관리본부는 3가지 버전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14일부터 3주간 매주 1편씩을 분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올리고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삼성화재 옥외전광판에도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선진국보다 떨어지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비율을 높이고자 '기증희망등록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영상을 만들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 유인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장기기증 대기자가 너무나 많은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고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 교육 세가지 방향



전주성
충실대 평생교육학과 교수

예측들이 난무하지만, 어쨌든 우리와 우리의 후속 세대가 그 격랑 한 가운데 위태하게 떠 있는 배에 올라타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두 가지의 비관적인 예측이 있다.

첫째는 만들어진 것과의 공존 혹은 그것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짐 데이터(Jim Dator)는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실업의, 꿈의 사회를 예언하였지만, 다수의 미래 예측가들은 잉여 인간의 출현을 예언한다.

많은 부문에서 인간의 노동은 로봇으로, 의사결정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게 될 것이다. 테슬라모터스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상용화로 인간의 20%만이 유의미한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에서 알리바바가 하루 만에 기록한 28조의 매출은 사실상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의 기여이다.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에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둘째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이다.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첨단 기술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급격히 심해질 것이다. 지그문트 바우만(Zigmunt Bauman),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와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분단된 사회의 위험을 지적한다.

2030의 사회는 점점 10:90의 사회로 향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2015년도 기준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8.5%에 달할 정도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헬조선', '삼포세대'라는 용어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우선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첨단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초연결 사회화는 역설적이게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편화시키고 피상적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어느새 직접적이기보다는 SNS 기반의 짧막하고 간접적인 의사소통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무수한 연결과 대화로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냄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외로운가? 지금까지의 교육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교육이 인간다움의 회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의 핵심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이는 새로운 경쟁 상대인 기계와의 싸움에서 대중의 인간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개인적 가치의 다양성 존중이다. 산업화 시대 교육의 이상은 이 시대에 적합한 표준화된 인간의 양성이었다. 인간을 하나의 표준에 맞추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Procrustean bed)의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의 교육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나아가 이들이 이루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는 미래사회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강화이다. 이들 역량은 대체로 자기이해력, 복잡한 문제해결력, 타인과의 협업력, 올바른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해력, 사회체제 변화에 대한 민감성(시스템적인 사고능력), 자기주도성 등이다.

우리의 교육이 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체제라는 큰 그림 안에서 형식교육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우선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과 운영, 미래사회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구축, 고등교육체제에서의 나노디그리(nano-degree)와 같은 융통성 있는 학력의 인정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껌질을 깨야만 숨을 쉴 수 있다.

충남도교육청, 트라우마에 노출된 학생 지지하기 프로그램 직무연수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심한 충격적인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게 심리적 안정과 불안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

문가 양성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2차에 걸쳐 Wee 프로젝트 상담인력 250명을 대상으로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1차 교육을 실

시했으며, 오늘 27일부터 28일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따돌림 등 폭력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사람들, 각종 사고 현장에서 처참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상처(트라우마)에 기인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기혐오와 증오심이 뒤섞여 인격적으로 뻘뻘어지고 이상행동을 하는 계기가 되곤 한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고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생상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연수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

으로, 상담인력들은 연수 즉시 각급 학교에 투입돼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Wee센터에서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한 위기 상황 조기 진단·예방 및 심층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상담·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체육인성건강과 조기성 과장은 "충남도교육청은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트라우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안과 두려움, 고통으로부터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모든 학생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오늘의 소사

Table with multiple rows of news snippets, including dates and headlines.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인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즈니스

2006년 5월 17일 창간

Table with columns for roles (Editor, Publisher, etc.) and contact information.

상담문의 041-736-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KIBO
벤처기업인증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더 큰 사랑을

보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아이들의 생각을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공간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실현과 협동 봉사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폭 넓은 생각과 시각적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작 품 명 사제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250*720*2500

작품특징 사제상은 스승은 사랑으로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

30년 전통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d-space.com

학교조형물 다보보랜드

Artschool I LOVE
Environmental sculpture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환경조형물 전문업체의 품격
- 새로운 공법특허 제작공법으로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 최고의 작가, 최고의 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조형물
-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조형물

- | | | | |
|--------|---------------|-----------|-----|
| 도원초등학교 | 죽림초, 죽림초, 죽림초 | 연봉초등학교 | 사제상 |
| 권양초등학교 | 가죽초 | 월명초등학교 | 동상 |
| 도당초등학교 | 유곡 | 속초삼거리 유자현 | 사제상 |
| 나래초등학교 | 사제상 | 석성초등학교 | 가죽초 |
| 석양초등학교 | 사제상, 가죽상, 가죽상 | | |

조형물 / 조형사상물 전문기업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상담
041.733.9558

www.hd-space.com